“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 꿈꿔…모든 시정 시민께 여쭙고 가겠다”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신임 광주시장이 1일 오전 취임과 함께 민선 6기를 시작했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역사적 선택에 의한 첫 시민시장으로서 무엇보다 시민들을 우선시하고, 공직자와 함께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사는 광주’를 시정구호로 내건 윤 시장을 만나 그로부터 정치 철학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 6기 시정 원칙

1. 시민에게 답이 있다. 현장에서 출발한다.
2. 평가는 역사와 시민에 맡긴다.
3. 모든 행정 공개하고, 시민뜻 최대한 반영.
4. 최소 부담으로 최대의 복지를 얻는다.
5. 5개 자치구를 파트너로 존중.

시민들 변화·정권교체 열망 새 인물 선택

非 행정가 출신 시장 한계 발로 뛰어 극복

–큰 표 차로 당선됐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광주시민은 늘 위대한 선택을 했다. 역사의 고비마다 ‘광주’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높은 역사의식 때문이다.

시민들에겐 기존의 정치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실망이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면서 ‘새정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시작됐다. 광주의 변화는 곧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고, 6·4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계속되는 호남 소외로 2017년 정권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커졌으며 ‘새인물’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갈수록 거세진 것이다.

–광주시장을 해야겠다고 생각 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안 대표를 만나 ‘새정치’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우리 둘 모두 지향하는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새정치를 시작했다.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치의 공공성 회복,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해 어느 날 지인들과 아프리카에 진료 다녀온 이야기를 하던중,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본적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들었다. 이러다간 진짜 우리 광주가 무너져 내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이기도 한 김남주 시인의 묘에 가서 3시간동안 앉아 생각한 끝에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非행정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나 종합 광역행정을 펴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당선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당을 초월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두 모셔 국비 확보를 위한 회의를 한 것이다. 또 세종시를 방문해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광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을 보면 광주 사람이 아님에도 광주정신을 숭고하게 여기고, 늘 광주를 걱정하며 광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또 광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안겨주면서 광주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에서 65년을 살았으며, 30년 넘게 시민활동가로 지냈다. 시민운동, 행정, 정치 모두 귀결점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과 시장의 역할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혼자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이나 실무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항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대정부 활동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또 선거기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달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뇌에 찬 결심으로 저를 공개 지지해 주셨고, 선거 기간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응원하고 지원했다. 이 같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희망광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선 6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도움을 받았다.

제가 강조하는 시정의 주요 방향 중 하나가 광주·전남의 상생이다. 우리는 원래 한 뿌리였으며,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보다 많은 사업에서 협력하며 손을 잡고 함께 해야 할 때이다.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지역의 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시정 또한 시민과의 소통, 지역간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 등을 통해 화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장현 시장 프로필

▲1949년 광주 출생 ▲아이안과 대표 원장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사)광주·전남 VISION21 이사장 ▲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광주·전남은 한뿌리 상생의 길 가야

지하철 2호선 여론 수렴 재검토 필요

–평소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서민의 발’인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자가용 타고다니는 시각으로 인해 지하철 건설에 소극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기아자동차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지난 2008년 ‘소울 1호’차를 구입했고, 개인적으로 소울은 가장 사랑하는 애마이다.

평소에는 산책이나 등산을 좋아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는 편이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라는 발언을 한 데서 빚어진 오해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사업을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 건설은 대형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 광주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다.

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뻔한 데도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 그대로 따르고 추진하자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과 광주는 도시 규모나 재정 상황 등 다양한 구성면에서 많이 다르다. 박원순 서울시장식 행정 모델 중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대형 토건공사나 전시행정 등을 지양하고, 시민들을 위한 기본과 원칙의 시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가)추구하는 시정도 박원순의 시정과 비슷한 ‘사람 존중 생명도시 더불어 사는 광주’이다.

희망광주 준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의 혁신정책 사례를 검토했다. 현장 방문과 다양한 각도의 연구를 통해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했고, 이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준비하겠다.

선거과정에서 시민들과 직접 논의해서 만든 생활밀착형 공약 ‘주먹밥 약속’이 바로 이같은 정책과 같은 맥락이며, 서울시 사례를 연구해 이를 더욱 구체화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데 기여할 생각이다.

–항상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인사나 공사에 있어 학연이나 혈연·지연 등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다. 이에 대한 신임 시장의 생각은?

▲광주에서 60년 이상 살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친구, 호형호제하며 지냈기 때문에 140만 광주시민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학연이나 혈연, 지연이 특별히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능력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이 있다하여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사와 조직개편, 그리고 시정을 이끄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시민께 여쭙고 가겠다’는 생각만 변함없으면 이같은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5기 시절 임성한 산하 기관 단체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중앙 정부나 다른 지자체 산하 기관들의 장도 바뀌는 것이 상례다. 이는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철학이나 가치관 등을 공유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리수를 두어 취임과 함께 모두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산하기관의 현황과 남은 임기, 또한 민선 6기 시정 방향과 정책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 이 또한 많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임기 끝나는 4년 후 어떤 광주를 꿈꾸는가?

▲항상 꿈꿔왔고, 지금도 희망하는 광주는 시민들의 삶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존을 갖고 살아가는 당당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광주는 늘 아프고 어려운 곳이었다. ‘광주정신’을 표방하며 대한민국 민주 성지,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 인권·평화의 도시 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광주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다.

이젠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높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넉넉한 경제도시가 돼야 한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따뜻한 복지도시, 남도의 맛과 멋 그리고 흥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친환경 100년을 준비하는 푸른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당당한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직 정직한 변화만을 추구할 것이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 소통하고 논의를 거치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